

2026년
9월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KOICA ODA연구·교육원

A Thematic Review of the Potential Future Role of the World Bank in Financing Health Systems

보건 시스템 재원 조달에서 세계은행의 잠재적 미래 역할에 대한 주제별 검토

2025년, 원조 예산의 급격한 삭감과 자금 조달 위기는 세계 보건 원조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원조 기금의 파편화와 공여국 및 특정 질병 중심의 수직적 지원 등)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부각시켰으며, 다자개발은행(MDB)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세계은행이 보건 부문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보건 재원 분야에서 세계은행의 현재 역할과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세계은행이 나아갈 미래 역할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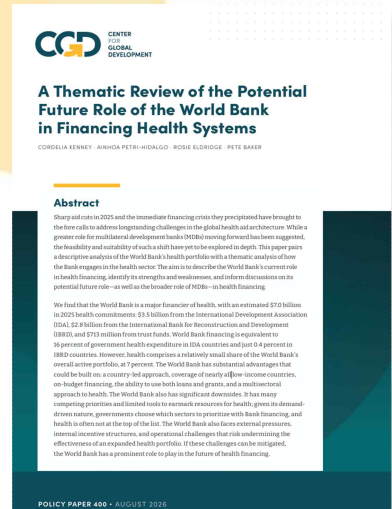
연구 결과, 세계은행은 보건 부문의 주요 자금 지원 기관으로 2025년 보건 약정액이 약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은 크게 세 가지 출처로 나뉘며, 국제개발협회(IDA)² 35억 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³ 28억 달러, 신탁기금 7억 1,300만 달러로 구성된다. 한편,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은 최빈국 국가(IDA 지원) 정부 보건 지출의 1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진국 국가(IBRD 지원)에서는 그 비중이 0.4%에 불과하다. 또한, 막대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보건 부문이 세계은행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세계은행은 국가 주도적 접근 방식, 저소득국 대부분을 아우르는 범위, 예산 내 자금 조달, 차관과 무상원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보건에 대한 다부문적 접근 방식 등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경쟁하는 우선순위가 많고, 보건 분야에 자원을 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수요 주도적 지원 특성상 각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보건의 밀릴 수 있고, 외부 압력 및 운영상 어려움 등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할 중대한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면, 세계은행은 미래 보건 자금 조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¹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ex.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²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로 세계은행 산하 기관이며 자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최빈국을 대상으로 주로 무이자 대출이나 무상원조를 전담함.

³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세계은행 핵심 산하 기관이며 중진국 대상 개발 자금 대출



- 기관/학술지명: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문서종류: Policy paper
- 발행연월: 2026.8.
- 저 자: Cordelia Kenney et al.
- 주 제: Global health
- 키워드: Health Financing, World Bank, Global Health system
- 출처: <https://shorturl.at/w17MZ>

Can the UN close the global AI gap? UN은 글로벌 AI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본고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글로벌 대화(UN Global Dialogue)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AI 기술 격차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 논평(Expert Comment)이다.

첨단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AI 역량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많은 국가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기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40가지가 넘는 AI 거버넌스(관리 체계) 수단이 존재할 정도로 AI 거버넌스 주도권은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네바 정상회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¹, 국제민간항공기구(ICAO)², 세계보건기구(WHO)³ 모델과 유사한 '대화들의 대화(Dialogue of Dialogues)'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는 초국가적인 단일 규제 기관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서 기존 거버넌스 체계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증거 기반의 평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다양한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체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건 보고 양식, 위기 대응 프로토콜, 위험 분류 등의 공통 표준과 이를 연결할 '번역 키(Translation Keys)'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발전시키기 좋은 실질적인 협력 형태로 '컴퓨팅 연합(Compute Coalitions)'을 제시한다. 이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컴퓨팅 자원과 인프라, 전문 지식을 한데 모아 초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으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대륙 실행 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과 100개의 공동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브라질의 '브라질 인공지능 계획(PBIA)'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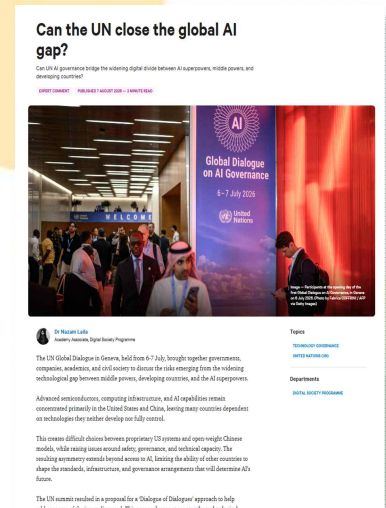
결국 글로벌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다자주의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UN을 통해 모든 국가가 글로벌 표준 설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때, 인공지능이 더 큰 분열이 아닌 보편적 진보를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¹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²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³ WH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⁴ PBIA: Plano Brasileiro de Inteligência Artificial (영어로 Brazilian Artificial Intelligence Plan)



- 기관/학술지명: Chatham house
- 문서종류: Expert comment
- 발행연월: 2026.8. (Latest Articles)
- 저 자: Nazam Laila
- 주 제: AI governance
- 키워드: Technology governance, UN, Digital society, AI governance
- 출처: <https://shorturl.at/ljybH>

The Effects of a Resource Boom on Wealth and Human Capital in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의 자원 붐이 부와 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국제 바닐라 가격의 6배 급등이 마다가스카르의 소규모 바닐라 농가에 가져온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바닐라 재배 지역의 광범위한 농촌 인구에게 상당한 부의 증대를 가져왔다. 전체적인 노동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바닐라 생산자들이 농업에 계속 종사할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적된 부는 성인의 심리적 웰빙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작물 가격 상승이라는 긍정적 외부 충격이 농촌 가구의 생활 수준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출 작물 생산이 농촌 빈곤층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오랜 학술적 논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작물 가격 상승이 생산 농가에 상당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빈곤율이 높고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수출 작물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 기관/학술지명: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 문서종류: Article
- 발행연월: 2026.8.
- 저 자: Christopher D A Boone et al.
- 주 제: Agriculture & Economic development
- 키 워 드: Economic development, Agriculture, Export commodities, Psychological well-being
- 출 처: <https://doi.org/10.1093/wber/lhag027>

Better together? The effects of integrated social services for women

함께할 때 더 나은가? 여성을 위한 통합 사회 서비스의 효과

본 연구는 무작위 실험을 통해 엘살바도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사회 서비스의 효과성을 연구했다. '시우다드 무헤르(Ciudad Mujer)¹' 원스톱 센터는 보건, 법률, 금융, 고용,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대응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연구진은 4,000명 이상의 여성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시우다드 무헤르 방문을 권장했고, 두 번째 그룹(위약군)에는 일반 지역 보건소 방문을 권장했으며, 세 번째 그룹(대조군)에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약 1년 후, 시우다드 무헤르 방문을 권장받은 여성들은 센터를 더 자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 서비스 이용률이 0.53 표준편차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또한 일반 보건소를 안내받은 그룹이나 아무 개입이 없었던 그룹과 비교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10%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¹ 시우다드 무헤르(Ciudad Mujer): 원스톱 슝 센터를 통해 여성 직원과 여성 이용자만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성별 맞춤형 설계, 현장 보육 서비스, 포괄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단 한 번의 등록(one-time-only registration)만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든 서비스(보건, 성폭력, 경제적 자립, 교육, 보육)는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으며 선착순으로 운영되었다(본문 231p.).



- 기관/학술지명: **Journal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 문서종류: Article
- 발행연월: 2026.5. (Volume 18, Issue 2)
- 저 자: M. Bustelo et al.
- 주 제: Gender equality
- 키 워 드: One-stop shop, Randomized promotion, Public service provision, Gender equality
- 출 처: <https://doi.org/10.1080/19439342.2026.2676625>